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글들

신문·잡지·책의 우리글 오염 심각...말의 '종살이' 벗어나야

이오덕

아동문학가

신문이나 책을 읽다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글을 만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괴상한 글이 갈수록 늘어나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아 걱정이다. 최근에 본 이런 글을 손에 잡히는 대로 몇 가지만 들어 본다.

신문지상에 난무하는 일제말

① “나로부터의 변화”(어느 주간신문 칼럼의 글제목)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칠십 평생을 책만 읽어온 나 같은 사람이 모르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를 것이다. 부디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런 글을 보고 기가 죽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글이란 이렇게 알아볼 수 없도록 이상한 말법으로 써야 알아주고 신문이고 잡지에도 실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는 말기를 빌고 또 빌 뿐이다.

제목으로 적어 놓은 말을 모르다면 본문을 읽으면 그 제목의 뜻을 알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제목을 이렇게 쓴 사람이 본문인들 쉽게 읽을 수 있게 썼을 것 같지 않다. 설혹 쉽게 썼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읽고 싶은 기분이 안 난다. 나는 제목부터 말이 안 되게 써 놓은 글을 참고 읽을 만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군자가 못되고, 되고 싶지도 않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책 읽기와 글 읽기에서만 너그러운 군자가 되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알 수 없게 써 놓은 글은 그저 읽다가도 책이든 신문이든 집어던지는 것이 옳다. 그게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가 되는 말에 대한 예의다. 우선 그렇게라도 해야 글을 글같이, 말이 되는 글을 쓸 것 아닌가.

② “모더니스트적 역사관이 거시적이며 총체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이상주의적이라면 포스트모더니스트적 역사관은 미시적이며 단편적이고 실증주의적이며 현실주의적이다.”

얼마 전 어느 분이, ㄷ일보에 어느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무슨 말인지 좀 가르쳐 달라면서 적어 보내온 글이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적’이 열 번이나 나왔고, 글 전체로는 53번 나왔어요”했다. 그래도 어지간거지간해야지 무슨 할일이 없어 이런 글을 우리 말로 고쳐 쓴다고 머리를

씩히겠는가?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마음 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할 것이고, 차라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배우는 공부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다. 편지로 물어온 사람도 글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겠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알려준 것이라 본다.

③ “한술밥 먹으며 진검승부”

어느 일간신문에 났던 바둑 기사 제목이다. 여기 나오는 ‘진검승부’란 말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나처럼 일제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때를 살면서 일본 책을 읽었던 사람은 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국민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을 신문기사에, 더구나 기사 제목에 크게 써 내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가령 모두가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어째서 구태여 일본말을 써야 하나? 이 ‘진검승부’는 옛날의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부림을 해서 서로 죽기살기를 결판내는 짓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문을 보면 승부·승부한다·승부수·승부사... 일본사람들 노름판에나 쓰는 말들이 거의 날마다 기사 제목으로 커다랗게 나온다. 그러더니 이제는 드디어 ‘사무라이’들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관인가? 총독부 건물 뜰어 없앤다고 좋아서 손뼉을 치면서 제 마음 속에 모셔 놓은 총독부 건물은 신주 모시듯 하고, 산속 바위에 박혀 있는 일제 쇠말뚝은 뿔아 내면서 저마다 머리속에 박혀 있는 왜놈 쇠말뚝은 뿔아낼 생각조차 안 한다. 이래서 되겠는가?

어처구니없는 한자말 수두룩

④ “여운의 꼬리를 흠으며 스러져 가는 불, 잔해의 파편들이 마음을 때릴 때 시린 가슴으로 손을 내뻗어도 잡히지 않는 시간의 꼬리는 영원의 세계로 숨어든다.”

이것은 어느 잡지 속표지에 나온 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운’을 ‘울림’으로 고치고 ‘잔해의 파편’을 ‘부서진 조각’으로 고쳐서 읽어 봐도 모르는 마찬가지다. 거듭 읽으면 머리가 팽 돌 지경이다. 말장난 글장난은 우리 말, 우리 겨레를 놀림감으로



터무니없는 일본말이나 한자 말의 남용 등 말의 '종살이' 버릇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사진은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서점가에 나와 있는 관련책들.

삼는 것이다.

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개인의 모습과 삶을 꼴짓는 역할을 한다.”

이것 또한 어느 잡지에 나온 글이다. 무슨 말인지 얼른 머리에 안 들어와 여기 쓰인 낱말을 다듬어 본다. ‘매일’은 ‘날마다’로, ‘사용하는’은 ‘쓰는(하는)’으로, ‘역할’이란 일본말은 ‘노릇’으로 고치고, ‘꼴짓는’이란 말이 좀 수상스러워서 잘 살펴보니 ‘나타내는’이라고 할 것을 일부러 유식함을 보이려고 남들이 안 쓰는 말을 만들었구나 싶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서 이 글을 다시 써 보니 다음과 같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은 개인의 모습과 삶을 나타내는 노릇을 한다.’

이게 뭐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말이다. 속은 것이다. 한자말, 보통사람들이 쓰지 않는 말로 써 놓으면 그 글이 얼른 머리에 안 들어와 뭔가 깊은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글에 속아왔던가! 말로 하는 사기보다 글로 하는 사기가 열 배도, 때로는 천 배 만 배도 더 사람을 해친다.

⑥ “이층교실에서 모자이크의 찢어진 종이 조각처럼 붙어 있는 아이들의 눈빛들이 속알머리 없는 머리에 따갑게 쏟아졌습니다.”

⑦ ‘일어났어요, 엄마.’
“기지가처럼 늘어진 목소리 한 줄이 흘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문단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는 두 작가가 쓴 동화에 나오는 구절이다.

낱말 하나하나 어려운 것이 없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머리에 안 들어온다. 긴장해서 거듭 읽어 보면 겨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안개를 잡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 아동문단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동화나 동시를 이런 꼴로 써야 문학작품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문단에서 인정을 받는 줄 알고 서로 다투어 말장난을 부리는 흐름이 이뤄져 왔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이것은 분명히 문학의 타락이다. 이런 글을 문학작품이라고 읽어야 하는 한국의 어린이들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재앙을 받는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겉모양만 번드레한 말장난도 심해

지금까지 일곱 가지 보기글을 든 가운데서 ①②③은 일본말 또는 일본말법을 그대로 따라 쓰는 데서 알 수 없는 괴상한 글이 되었고, ④⑤는 유식한 한자말을 섞어서 말장난을 했고, ⑥⑦은 아이들이 아는 말을 가지고 장난을 했다. 이렇게 일본말 일본글 흉내내는 것도, 근사한 한자말 쓰고 싶어하는 것도, 말장난을 즐기는 것도 다 제정신을 가지지 못한 까닭이다. 속은 비었는데 겉모양만 남의 흉내를 내어 번드레하게 꾸며 보이려는 이 얼빠진 종살이 버릇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언론이고 출판이고 문학과 교육이고 정치고 산업이고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될 것이다. ❖